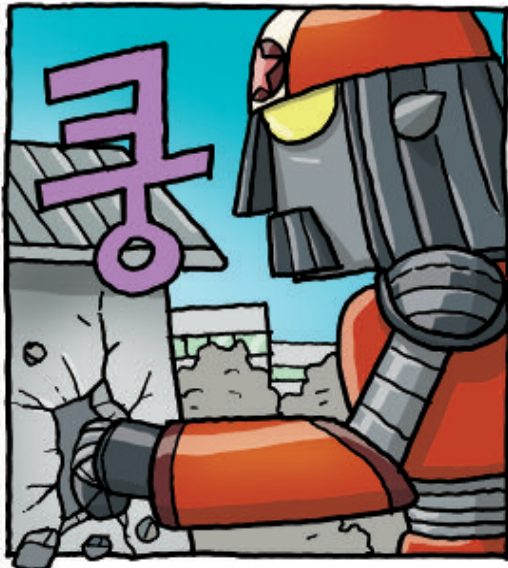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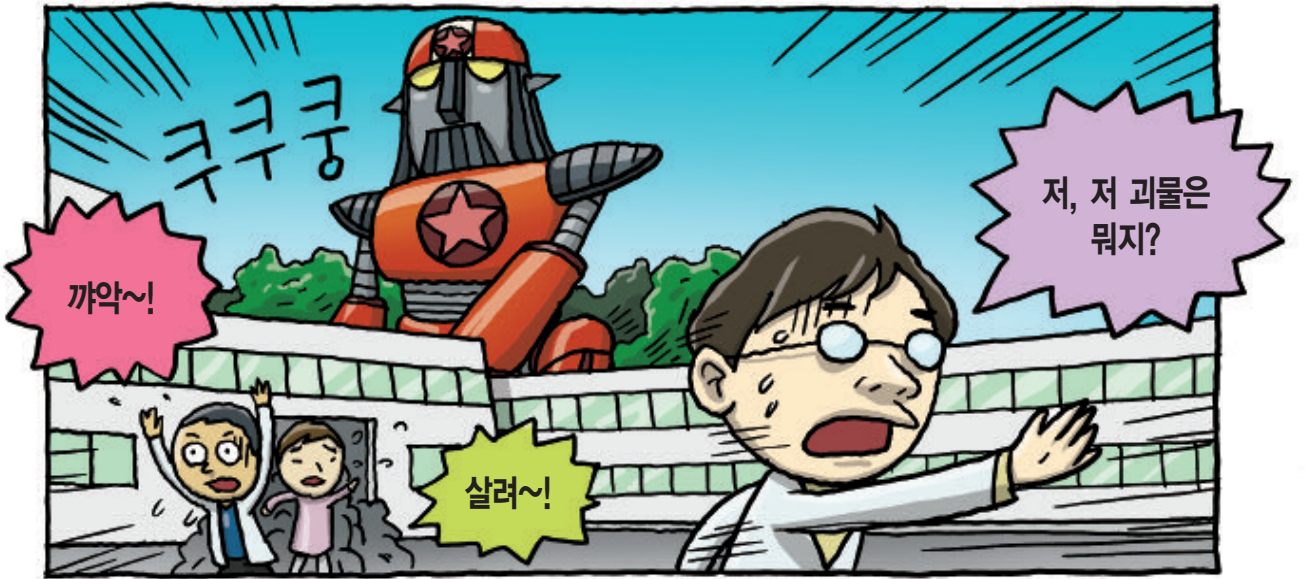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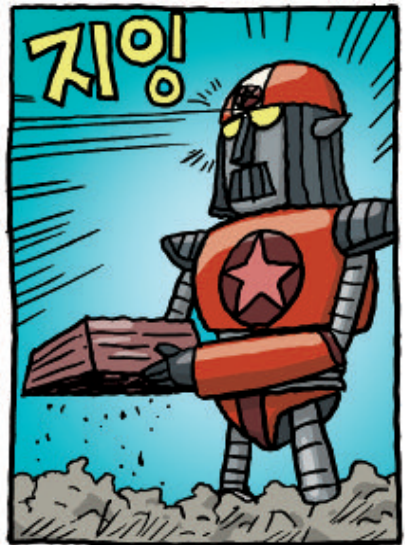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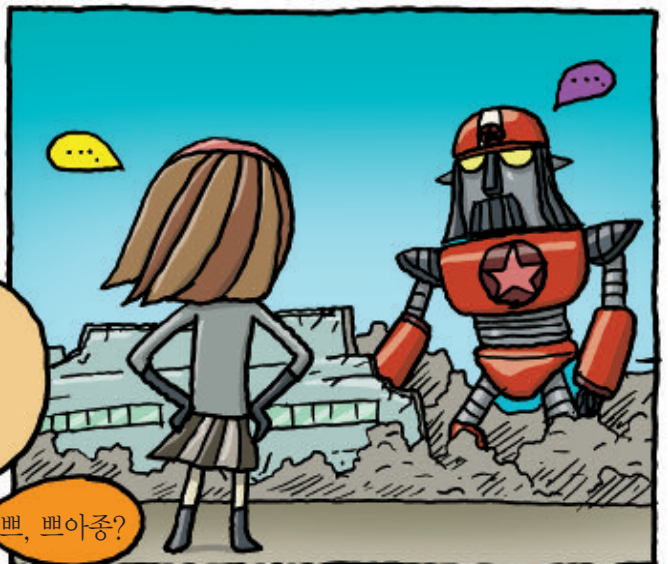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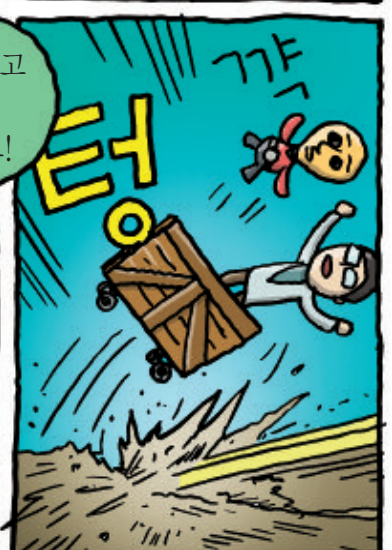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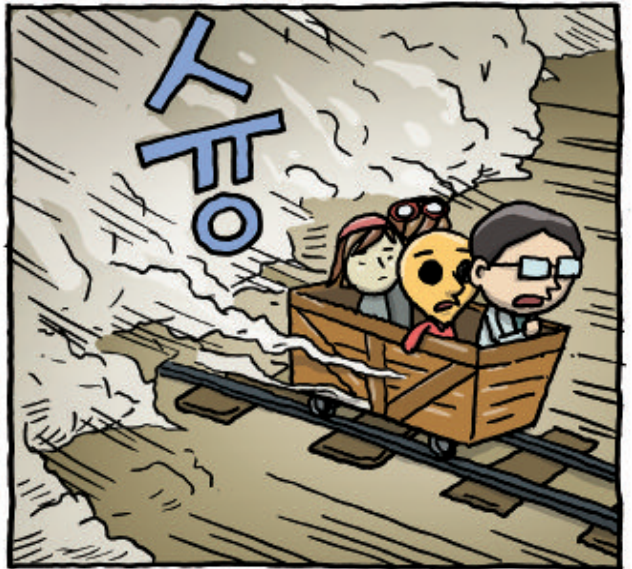
지난 줄거리 : 강원도에 놀러 왔다가 길을 잃고 동굴 안에서 자게 된 스틸로 일행. 하지만 몰래 일행을 따라다니던 무헤드가 RS-8호를 피어 스틸로와 뿌아쭈, 뿌이를 동굴에 가둔다. 이들을 따돌린 둘의 꿈공이는 과연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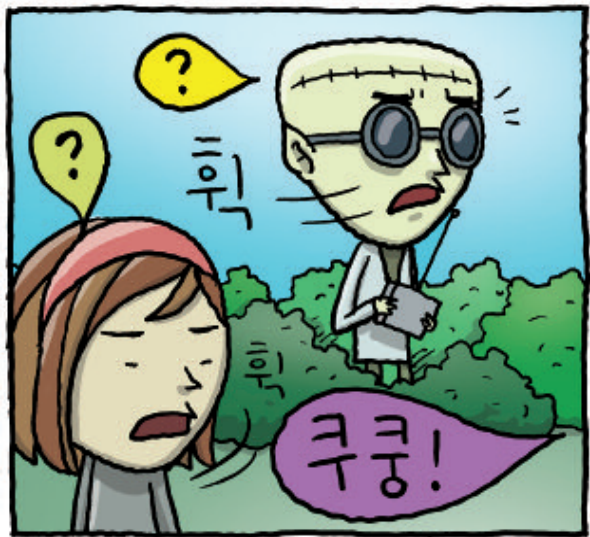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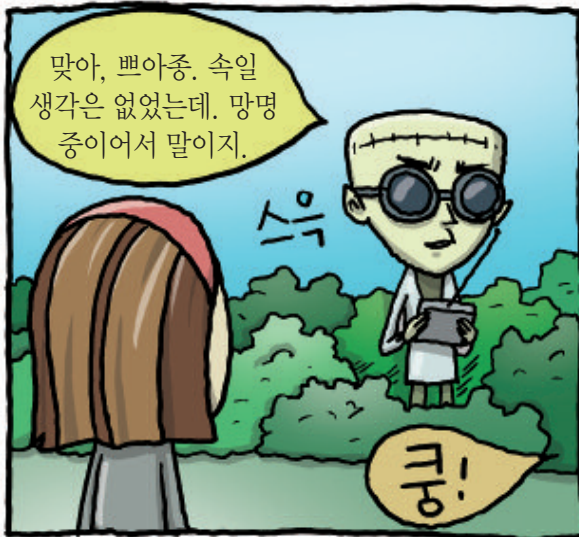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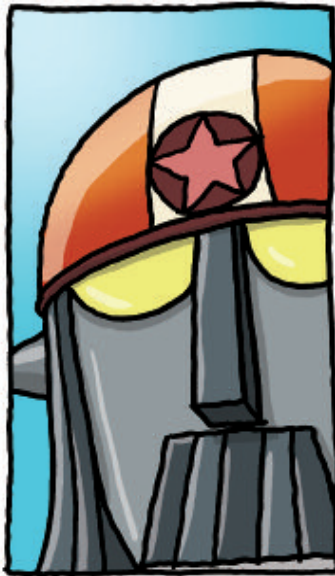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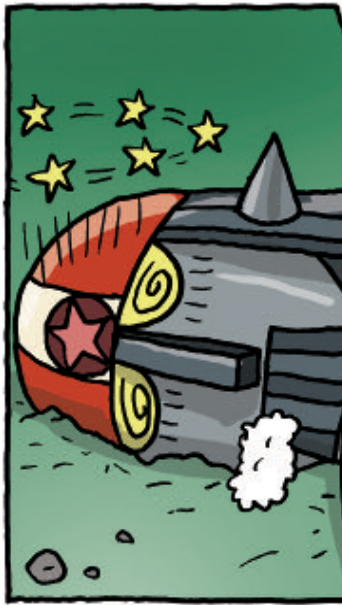












왜 쓰러진거야?
정신차려! 죽으면 안 돼!



흠... 무헤드가
잘못 만들었을
리는 없는데...



중금속 중독이군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정도니까 기계도...



틀림없이
탄광배수에
오염된 강에 들어
갔을 거예요.

심심해~



아, 이걸
어쩌지? 내 자식
같은 로봇이! 누가
좀 도와 줘요!



흠. 저 사람이
로봇을 만든
과학자인가 봐요.

...네. 본성이 못된
것 같지는 않고...
같은 과학자로서
불쌍하군요.



■ KIST 강릉분원 천연물소재연구센터 의약품및식품소재연구그룹

‘어린이과학동아’ 친구들 반가워요! KIST 강릉분원 천연물소재연구센터 양현옥 센터장이예요. 쓰러져 있는 로봇을 붙들고 울고 있는 저 이상한 과학자를 보니 도와 주지 않을 수 없군요. 상태를 보니 중금속 중독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기계가 생체 피부를 이식했다고 암세포도 생기고, 지구의 과학 기술치고는 이상하다는 의심이 들지만 도와 주는 게 도리겠죠? 마침 우리 KIST 강릉분원에서 생리활성물질을 연구하고 있으니 그걸로 치료해 봐야겠어요.

생리활성물질이란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이로운 기능을 하는 물질들을 말해요.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이 활발해지도록 도와 주거나 병을 예방하는 천연 물질이 대표적인 예지요. 이런 천연물은 다른 약에 비해 부작용이 훨씬 적으면서도 효능이 뛰어나요. 그래서 KIST 강릉분원에서는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나는 나물이나 산채, 인삼 등을 이용해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뇨나 치매와 같은 병을 막을 수 있는 식품도 연구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실험 중인 항암물질을 저 로봇에게 처방해 보기로 해요. 로봇의 몸에 퍼져 있던 암세포가 줄어드는 게 보이네요! 역시 로봇 피부에 이식한 생체 조직이 암에 걸렸던 거였어요. 이제 로봇이 깨어났어요. 효능이 있어 다행이에요.



